

2022년 05월 2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4편 9~10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10(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사도행전 18장 24~28절(신약p.220)

- 27.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 25.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 말씀선포 /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삶

부부는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요 뜻을 같이 하는 동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부부에 대하여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21일을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지난 2001년 국민 청원을 받아 2007년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굳이 부부의 날이 아니더라도 성도는 항상 부부가 한 몸으로 알고, 더욱 마음을 합해서 화목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법령으로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오게 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때문에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대적하기 시작했고 법정에도 서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부부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1.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수리아를 거쳐서 겐그레아를 통과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부부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자청하며 에베소까지 동행하며 3년 동안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고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물질적, 영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취미를 갖기도 하고, 건강을 위하여 같이 운동 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더 많은 실패와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그 열매가 없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로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부가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참으로 모든 가정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 그리스도의 지체를 온전히 세우는 삶입니다.

- 에베소에서 생활하던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라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모든 학문과 구약성경을 배운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요한의 세례에서 끝을 맺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 사도바울은 말씀하며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복음에서 예수가 없을 발견한 것 그들은 아볼로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식일에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하여 칭찬을 한 다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하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아볼로는 더욱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통하여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때로는 생각하고 뜻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 이 같이 행하며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잘못하고 실수 하고 잘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실수와 잘못이 보인다면 성도는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덕을 이루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온전히 세움을 통해 말씀을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삶입니다.

-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아가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일로 아볼로는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증거 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 끼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복음 사역을 돕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큰 배가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선원을 지도하며 배의 길을 지도하는 선장이 필요하고, 그 선장의 지시를 받고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도 필요합니다. 조타수도 필요하며, 노를 저으며 혹은 돛을 올리고 내리는 선원들도 필요하고, 맛있는 요리와 긴 항해도 지치지 않도록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요리사도 필요하며,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도 분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장의 지시를 따라 협력하며 노력할 때 그 어떠한 풍랑도 이겨내며 모두 함께 소망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이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함으로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현교회는 100명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는 선교의 교회요, 진리를 파수, 천국일꾼을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행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쫓겨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도시를 여행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삶으로 증거 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위하여 더욱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604(통288)장 완전한 사랑

◎ 폐 회 / 주기도문